

종합·해설

4·11 총선 표밭은 지금

■ 광주 남구

예측불허 표밭 야권연대 변수

광주 남구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고 장병완 국회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진입하면서 정치 지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최근 들어서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은 편이어서 정치적 유행성이 큰 지역구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설날 직전 실시한 광주일보의 19대 총선 여론조사에서 남구 민심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보였다.

18대 국회에서 '예산통'으로 맹활약했던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두터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단순 지지율에서 장병완 의원은 25.9%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김명진 예비 후보가 19.4%를 기록, 오차범위(±3.1%)에 근접한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후보 가장 대결(경선)에서 장 의원과 김 예비후보는 각각 36.7%와 36%의 지지율을 기록, 0.7%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정치 신인인 김 예비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 의원의 턱 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두 명에 불과한 점도 있지만 바다 민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변화'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이철원 변호사가 지난 25일 뒤늦게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뛰어 들면서 향후 당내 경선 구도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Table with 6 columns: 정당, 이름, 나이, 약력. Lists candidates from various parties including 무소속, 민주당, 한나라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and 민주당.

* 후보는 가나다 순

민주 장병완·김명진 접전 속 이철원 가세

진보 이민원·한나라 노덕린 출사표 대혼전

'11전 12기' 강도석 등 바닥 다지기 강행군

남구는 지난 2010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민노당 오병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총력을 기울일 핵심 지역구로 꼽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현실화한다면 남구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구의 총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11전 12기'로 잘 알려진 광주시의원 출신의 무소속 강도석 예비 후보도 13%의 지지율을 보이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노덕린 후보는 3.5%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남구의 총선 판도가 혼전 구도를 보임에 따라 긴장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광주 국회의원의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등 신발 끈을 바짝 조이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장 의원 측은 그동안 남구 민심이 '바람'보다는 '인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검증된 '예산통'으로 남구 발전과 정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인식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20~30대 표심 공략을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가동, 소통의 창을 넓힌다는 방침이

다. 김 예비후보는 짧은 열정을 토대로 새벽부터 자정까지 바다 민심을 다지는 지독한 강행군을 펼치며 지지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의 지지세가 그의 정치적 자산이나 동력보다는 '바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치적 비전으로 중장년층 유권자에 어필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이 후보는 '혁신과 개혁'을 원하는 남구 민심의 요구에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부응, 지지율이 이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연대 여부를 떠나 최근 진보정당에 대한 남구 민심의 지지세가 높다는 점에서 '일'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의 강 후보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어렵게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전격 사퇴한 점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의 노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묵묵하게 남구의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지지층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1 총선 현장

박주선, 시민 공동정책단 공모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시민의 복수를 반영한 정책공약을 만들기 위해 '99%와의 약속' 공동정책단을 오는 3월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박혜자 "혁명적 공천하라"

박혜자 민주당 광주시 서구 갑 예비후보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공천을 혁명적으로 해야한다"며 "당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공천심사원칙을 혁신적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로 통해 "민주당이 공천혁명 없이 '새로운 정치' 구호만 남발할 경우 국민의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맞을 뿐더러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공천 틀을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제1당,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30일 오후 3시 광산구 월곡동 운남빌딩 5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손화규 전 대표와 지지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재두, 선거구 단식중 병원 입원

정치권의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분할 움직임에 반발, 11일째 단식중인 민주당 김재두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입원했다.



17일부터 민주당 중앙당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급격한 체력저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체크를 받았다. 김 후보는 "농촌지역 선거구를 통합시키면 농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질 것"이라며 중앙당사로 복귀해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갑길 "중소 조세지원 늘려야"

전갑길 민주당 광산갑 예비후보는 29일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지만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면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강,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김이강 민주당 광주시 서구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가장 신성한 정치를 통해 국민의 가슴을 통쾌하게 해드릴 것"이라며 "1% 특권층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혜를 99% 보통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형일, 동구 인쇄클러스터 추진

양형일 민주당 광주시 동구 을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의 남동·공동 지역에 밀집돼 있는 인쇄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쇄·출판·기획·출력·디자인·포장 등 관련 업체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인쇄출판특화 클러스터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병문 "통장 수당 현실화해야"

오병문 통합진보당 광주시 서구 을 예비후보는 29일 "행정의 최전선이자, 일반 공무원에 해당되는 통장의 수당이 지난 2003년 이후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통장의 수당 현실화를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03년 10만원이던 통장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 뒤 9년 동안 인상은 0%였다"며 "행정안전부 훈령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공동체를 보살피고 있는 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 77%가 40~50대

96명중 50대 절반...30대 한명도 없고 70대는 5명이나

광주·전남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40~50대가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제도권 정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96명(광주

41명, 전남 55명)의 신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가 51명(5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3명(24%), 60대 17명(18%), 70대 5명(5%) 순이었다. 40~50대가 7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0대는 한 명

도 없었다. 70대 예비후보 5명 모두 전남 지역구를 선택했다. 여성은 광주 2명과 전남 5명 등 7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65명(68%)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무소속 14명(15%), 통합진보당 12명(13%), 한나라당 4명(4%), 창조한국당 1명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직함을 사용 후 후보가 각 7명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광주 동구 무소속 박 현 후보와 광주 서구 갑 무소속 정용화 후보는 각각 대통령 이름을 빼고 '청와대 공보국장'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경력으로 등록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쟁률은 광주 5.2대 1, 전남 4.6대 1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Hanja/Hanwen Instructor Qualification) with details on exam dates, locations, and fees.

Advertisement fo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National/Recognized Hanja Instructor Qualification) with details on training courses and enrollment.

Advertisement fo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장' (Nongseongdong Leaders High Real Estate Showroom) with floor plan, pricing, and contact information.